

생태·녹색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송창용* · 양승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통계센터 소장
** 동양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 교수

생태·녹색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요약》

- 21세기 들어 여가시간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증대,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 소득의 증가 등에 따라 관광의 흐름과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관광객의 욕구가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생태, 환경, 건강, 웰빙 등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원하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친환경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됨에 따라 관광산업정책 역시 녹색성장 중심의 관광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기존의 경제성장에만 중점을 둔 환경훼손형 관광개발정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롭게 창출되는 녹색기술 및 녹색직업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녹색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됨.
- 이에 본고에서는
 - 생태·녹색관광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 생태·녹색관광산업 지원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 생태·녹색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생태·녹색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I. 관광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지속가능성·친환경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

- 21세기 들어 여가시간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증대,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 소득의 증가 등에 따라 관광의 흐름과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관광객의 욕구가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생태, 환경, 건강, 웰빙 등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원하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대규모 관광개발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지속가능하고 생태·환경 중심의 녹색관광 정책으로 변화 필요

- 대규모 관광개발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중심의 녹색관광 정책으로 변화
 - 기존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훼손형 관광개발에서 환경보호와 개선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관광정책의 입안과 추진이 필요함.
- 관광개발의 추진주체 역시 종래의 중앙집권적이며 하향적인 개발방식을 벗어나 지자체 및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관광개발 형태로 변화

〈표 1〉 관광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 개념	전통적 관광	21세기형 관광
기간연도	1980~2000년대	2000년대 이후
1인당 국민총소득	2,000~10,000\$	10,000~20,000\$
추진주체	정부/공공주도의 관광개발 (Top-down)	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Bottom-up)
개발형태	환경훼손형 대규모 관광개발 · 대형리조트 및 테마 파크 · 환경 훼손 및 자연 파괴 · 경제성 및 수익성 위주	지속가능성/친환경·저탄소형 관광개발 · 환경 자원의 적정 이용 · 지역문화 다양성 존중 · 경제적 편익 및 형평성
의식변화	경제성장/외형중심의 가치	전통문화/생태환경적 가치
관광패턴	대중관광/단체관광	체험관광/생태·녹색관광
활동성	정적 활동(관광/휴식/감상)	동적 행동(놀이/레포츠/교육/모험)

■ 생태·녹색관광산업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대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생태·녹색관광산업은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여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생태·녹색관광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 생태·녹색관광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 생태·녹색관광산업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 생태·녹색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I. 생태·녹색관광의 정의

■ 생태·녹색관광(Eco-tourism)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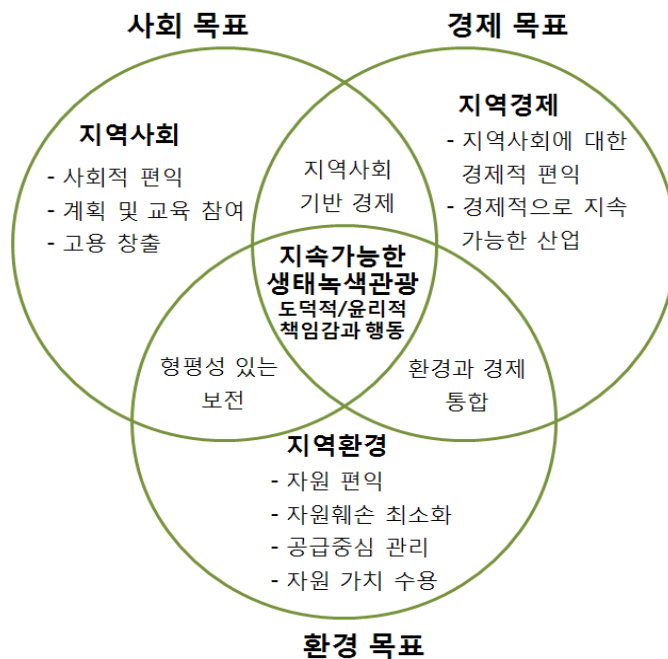
- 생태·녹색관광은 도시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측면에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 기반의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체류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함.
- 생태·녹색관광은 지역 문화 환경의 보전과 지역공동체의 경제와 주민의 복리 증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있는 여행임.
 - ▶▶ 생태·녹색관광은 지역다움과 지속성(Sustainability)이란 속성을 가짐으로써 다른 유형의 관광과 차별화될 수 있음.

■ 생태·녹색 관광의 기본원칙

- 생태·녹색관광은 단순히 일회성 방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통, 관습, 생활문화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음.
- 고용 및 소득의 창출 등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에 기여함.
- 생태관광사업의 계획, 개발, 운영단계의 의사결정과정상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기반을 보장해야 함.
- 관광객에게는 지역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친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생태·녹색관광의 지속가능성

- 생태·녹색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 추구해야할 가치와 원칙은 환경적 목표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목표 달성을 통합적으로 추구할 때 가능하며 관광의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의 윤리적 책임감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



자료: Buckley(1994). 재작성.

[그림 1] 지속가능한 생태·녹색관광의 가치와 원칙

Ⅲ. 생태·녹색관광의 현황과 문제점

■ 생태·녹색관광의 현황

-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 ▶▶ 2008년 랍사르 총회의 경남 창원 개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생태 및 녹색관광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최근 생태·녹색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20선’을 선정·발표함.

〈표 2〉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추진의 형태 및 사례

관광 형태	추진개념	추진사례	추진주체
생태 관광	- 걷기중심 체험 - 생태계중심 체험 - 생태환경 관광시설 - 생태관광 활성화	- 제주 올레코스/오름트레킹, 지리산 둘레길 - 습지생태계, DMZ 생태계, 해안생태계 - 강원 백두대간 - 생태관광 프로그램 20선	정부/ 지자체/ 생태관련 단체
녹색 관광	- 휴양/체험공간 - 자연환경/전통문화 - 자연환경/생활문화 - 자연자산보전관리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 어촌체험마을(해양수산부) - 자연생태우수마을지정사업(환경부)	정부/ 지자체
친환경관광	- 환경수도 - 태양광 - 태양광 돔 - 태양광/한강물 - 탄소제로도시	- 경남 창원의 에코타운 - 충남 태안의 태양광발전단지 - 대구광역시의 솔라 캐노피 - 경기 김포의 에너지 절약형 관광모델 - 전남 무안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슬로 시티	- 느낌의미학과 생활/ 슬로 푸드	- 전남 완도의 청산도, 신안의 증도 (슬로 시티 1박 2일, 보물섬 증도여행)	지자체/ 지역대학

■ 생태·녹색관광의 문제점

가.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의 문제점

●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 중심의 비효율적 관광개발 형태

- 통합적 투자계획의 시너지(Synergy)를 발휘하지 못하고 중복 개발의 비효율성과 사업 수 대비 투자금액 부족 등으로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함.

▶▶ 2008년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생태·녹색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을 보면, 예산규모에서는 전체 2,478억 원의 약 12.8%, 사업 수에서는 전체 294개 사업 중 약 16.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지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 2008년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개요(294개 사업/2,478억 원)

분야	사업내용	예산지원	특성
관광지 등	- (관광지) 전국 230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 지원 - (관광특구) 우수 특구 대상 입간판 정비 등 지원	- 51개 사업 (관광지43,특구8) - 41,385백만 원	지구지정,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 (특구제외)
광역권 관광개발	- 남해안 관광벨트 등 6대 광역권의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 45개 사업 - 43,347백만 원	관광(단)지, 문화관광자원과 유사
문화관광자원	- 지역의 역사문화, 레포츠 자원 등에 도로, 주차장, 전시관 등 공공기반시설 설치 지원	- 143개 사업 - 115,018백만 원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
생태·녹색관광자원	- 갯벌, 습지, 철새, 동굴 등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관찰, 보호, 체험 시설 등 설치	- 27개 사업 - 18,931백만 원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
농산어촌마을	- 농산어촌의 마을 경관 개선, 연계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등	- 16개 사업 - 5,100백만 원	정주공간, 프로그램(콘텐츠)보완
가고 싶은 섬	- 외연도 등 4개 섬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 4개 사업 - 7,650백만 원	정주공간,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기타	-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도시 관광 활성화 지원, 지역방문의 해 지원, 전통문화 재현 등	- 8개 사업 - 16,340백만 원	복합적

자료: 김성진(2009), 「기후변화 대응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안)」.

나. 법제도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¹⁾

● 법규 정비의 미흡

- 생태 및 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근거 법규(관광진흥법)에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그 결과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해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사업 정체성의 미확립

- 생태 및 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내용, 기능 및 역할 등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한 단점이 노출됨.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타 유형의 관광자원 개발사업들과 차별화되는 사업내용, 기능 및 역할의 정립이 필요함.

● 사업 추진체계의 미확립

- 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사업선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해 부실한 사업들이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고 지원 후 사업의 추진정도,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사업 집행성과의 저조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교부실적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일부사업은 연속적으로 사업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지 못하여도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a).

다. 생태·녹색관광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점

-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부족

- 도입 초기인 생태·녹색관광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전문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적극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생태 및 녹색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인증제도의 구축과 동시에 관련 자격제도의 도입, 자격제도 관리의 체계화,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인증 및 자격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실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녹색직업 창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요구됨.
-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녹색성장산업의 대안의 한가지로서 생태·녹색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요구되는 상품 기획, 프로그램 운영, 실무 전문 인력 등의 체계적인 양성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광인력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관광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IV. 생태·녹색관광 일자리의 유형과 전망

■ 생태·녹색관광 일자리의 유형

- 자연 및 생태계 중심의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련 일자리

- 여행사, 숙박업, 지역 특유의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특산품이나 가공품을 제조, 유통하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

● 생태·녹색관광상품 기획 및 추진 관련 일자리

- 생태관광상품 기획사, 오름, 오솔길, 갯벌, 습지, 철새, 동굴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 가이드 또는 생태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녹색관광상품의 기획 및 운영인력 등이 새로이 주목받는 녹색 일자리로써 활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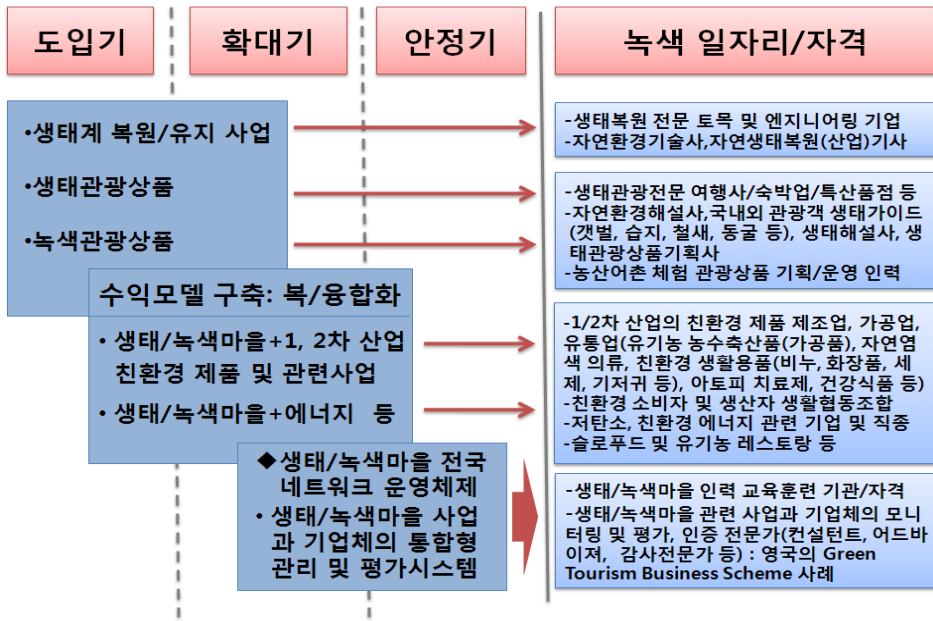
● 생태 복원 및 유지 관련 일자리

-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전략적인 추진과 함께 생태, 웰빙, 친환경, 자연,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환경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와 함께 유기농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 토양환경기술사, 생물분류기사, 식물보호기사 등 생태 및 자연환경에 관련된 자격증이 주목받고 있음.

■ 생태·녹색관광 일자리의 전망

- 지금까지 생태·녹색관광에 관련된 관광 상품의 개발과 추진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생태, 자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규모 녹색일자리의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생태·녹색관광 상품을 선보이면서 이와 관련된 녹색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생태·녹색관광의 활성화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신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임.
 - 현재 생태·녹색관광의 도입단계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기존 형태의 녹색 일자리 외에 다양한 형태의 관광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녹색직업이 형성되고 일자리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생태·녹색관광을 새로운 복·융합산업화 사업모델로 확대,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로써 생태·녹색관광과 함께 친환경 중심의 1, 2차 산업의 제조, 유통, 서비스업이 서로 복합되고 융합되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향후 생태·녹색관광산업의 확대가 실현되어 안정기로 진행될 경우 전국의 생태 및 녹색마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생태, 녹색마을 사업과 기업체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추진, 통합형 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관리기구나 조직이 필요함.



[그림 2] 생태·녹색관광의 단계별 일자리 창출 전망

V. 정책제언

- 생태·녹색관광 산업의 활성화 및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 생태·녹색마을의 수익모델을 구축하자
-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 기술, 전문 인력, 전통문화, 친환경 음식 등 모든 자원을 활용

하여 생태·녹색관광 자원과 결부된 복·융합화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핵심 전문 인력 풀(pool)을 갖고 있는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을 네트워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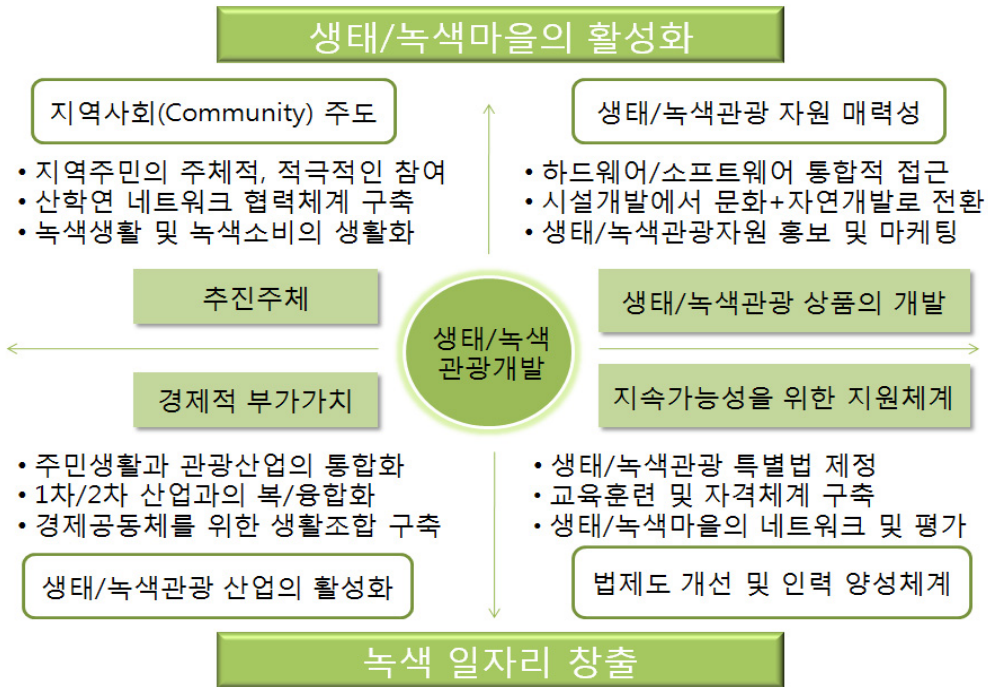
-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 기업 형태와 연계된 지역사회의 수익모델 개발을 힘 써야 함.

- 지역사회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1차, 2차 산업 제품 제조와 유통이 확대되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홍보 및 마케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소득과 경제적 부의 외부 유출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에서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임.

▶▶ 영국의 토트네스(Totnes) 마을의 경우 마을 내 상점가를 다양한 품목과 유형의 유기농상점으로 구성하여 마을 전체를 생태 및 웰빙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구조로 구축함. 특히, 지역화폐(토트네스 파운드)를 발행, 유통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고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음.

-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생태·녹색관광은 지역 생활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수익증가, 마을의 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전, 관광객과 마을주민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동참여를 통한 체험활동 및 지역축제, 지역 고유의 친환경 특산품, 수공예품 개발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을 확대·발전시켜야 함.



[그림 3] 지역 공동체 기반의 생태·녹색관광

■ 지속가능성 측면: 생태·녹색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체계를 구축하자

-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인력양성이필요함.
 - 생태·녹색관광의 대상은 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문화, 풍습, 무속, 역사, 민속, 농어업, 특산물, 기존 관광문화 등)을 포함함. 이처럼 다양한 관광소재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생태관광은 체험과 휴식, 재충전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보는 것 위주의 전통적 관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관광 상품의 내용, 진행, 준비 등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지식과 숙련형성이 요청됨.
 - 대학,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생태관광 실무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태관광 상품의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나가야 함.
 - ▶ 현재 대학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관광인력을 양성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생태관광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의 차별화는 부진한 실정임.

▶ 고용보합기금의 능력개발사업은 제조업 기능공 위주로 되어 있으며, 최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훈련분야와 규모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생물권 보전지역 및 생태·녹색관광자원에 출입, 활용, 해설할 수 있는 인증제도 및 공인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지역주민, 지역 NGO, 행정, 전문가, 관련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협력체를 구성하며 협력체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함.
 - 기존에 지역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생태해설가 등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격이나 인증체계를 법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훈련이 가능한 인재양성 체계가 필요함.

■ 법제도 측면: 생태·녹색관광특별법을 제정하자

-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가칭) 「생태·녹색관광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조직과 예산 등의 근거를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생태 및 녹색관광에 관련된 다양하고 산발적인 법규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생태관광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생태관광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표 4> 생태·녹색관광 특별법의 제정 방향

영역	내용	
현재 관련 법규정비	농업농촌기본법/ 농림어업인특별법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농업농촌기본법 제 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특별법 제 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마을당 2억 원 규모의 소액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
	자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 41-42조 생태관광의 육성, 생태마을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자연생태의 관광자원 사업 - 정부,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

<표 계속>

요인	내용
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법규 체계 정비 - 정부의 인센티브 개발을 통한 지자체의 건전한 경쟁 지원 - 생태녹색관광자원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의 구축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 녹색마을 제도/시스템 구축 -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개발
생태·녹색 관광 특별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내용(개발, 모니터링, 평가 등) - 녹색마을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내용(저탄소녹색마을, 우리동네 녹색마을 만들기, 녹색마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녹색마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등) -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 내용(친환경 관광상품의 인증제도, 한국형 생태관광의 모델 개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생태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 정부 및 지자체의 추진조직, 행재정 지원 법규

※ 일본의 「생태관광(Eco-tourism)추진법」

- 일본에서는 2007년 「생태관광추진법」을 제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배려하면서 지역의 창의성을 되살리는 생태관광을 지원함. 생태관광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관광진흥, 지역발전, 환경교육의 추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4가지의 추진방안
 - ①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수립
 - ② 지역관계자 주도의 추진협의회의 설치
 - ③ 지역의 생태관광추진방안의 수립
 - ④ 지역의 자연관광자원의 보전

참고문헌

- 강미희(2006). 『생태관광객의 여행동기 및 태도』.
- 김성진(2009). “기후변화 대응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안)”.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따른 관광정책 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2013』.
- 류선무·장용만·김성기(2001). “그린 투어리즘(Green-Tourism)의 개념에 대한 고찰.” 관광농업연구 8(1). pp.1-15.
- 문창현(2007). “생태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5(1), pp.71-94.
- 미야자키 타케시(2003). 『그린투어리즘과 일본의 농촌』. 김범수·오미숙 역.
- 송재호·이성은(2005). “그린 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평가를 위한 구조모델 구축과 적용.” 관광연구 저널, 19(1). pp. 81-97.
- 송창용·성양경(200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HRD Review 12-10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미숙(2009).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변화특성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33(3). pp.31-49.
- 오호영(2009). “녹색문화운동을 전개하자.” 녹색직업(미발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기준(2009).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전략과 실제.” 일본문화학보, 40. pp.387-405.
- 이성은(2009).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관광 정책”.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따른 관광정책 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a).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제도 개선 방안』.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b). 『정부부처간 관광자원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 Buckley, R. C.(1994). “A Framework for eco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pp.661-665.
- Butler, R.(1995). “Alternative Tourism: the Thin Edge of the Wedge.” in Smith, V. L. & Eadington, W. R., Tourism Alternatives: Potentials and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New York: John Wiley & Sons.
- OECD(1994). Tourism Policy and International Tourism in OECD Countries: 1991-199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